

과학과 기술 2017년 12월호



과학과 더불어
뜻을 키우셨던
김시중 명예회장님

글_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교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과충을 아끼시고, 부지런히 과학기술계를 위해 활약하시던 溪丁 김시중 명예회장께서 85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 갑자기 악화된 숙환과 힘든 씨름을 하시면서도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셨던 선생님은 진심으로 과학과 기술을 아끼셨던 우리 모두의 진정한 원로이셨다.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을 위해 2천 명이 넘는 과학기술인들이 빈소를 찾아주셨다.

과학기술과 더불어 키워온 뜻

중학교 시절부터 선생님께서 과학기술과 함께 키워 오신 뜻은 분명하고 확실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하루빨리 진정한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루어야 하고,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으셨다.

선생님은 언제나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분명한 인식을 요구하셨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과학기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與)'와 '야(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모름지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이 정파적 이념 논쟁에 희생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선생님의 확실한 신념이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다. 과학기술인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고, 막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인적 영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확실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선

진국의 꿈을 향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긴밀한 산학연 협력과 미래 세대에 대한 진심이 담긴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미래 비전을 가진 탁월한 행정가

선생님께서 문민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봉직하던 시기(1993.2~1994.12)는 우리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때였다. 그런 만큼 누적된 난제도 많았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모두 9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원전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안보 상황과 국제 정세도 복잡했다. 핵 개발의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북한과 정면으로 대치해야 했다.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작정 고집하기도 어렵던 시기였다. 여전히 낯선 나라였던 중국을 상대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얼마나 소중한 꿈이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모한 소망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절감했던 기회였다.

선생님은 뛰어난 미래 비전과 함께 강력한 실천력을 겸비한 탁월한 행정가이셨다. 원전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관실 앞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을 비치해두는 파격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가 고집하던 흑연 감속로의 안전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형 경수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쌓은 국제적 실무 경험이 UAE 원전 수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다. 비핵화 선언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다.

선생님의 관심이 원자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전설 속의 암초 '이어

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선생님의 창조적 발상이었다. '허황된 영토 걱정은 접어두고 과학기술 행정이나 잘 챙기라'는 경제부총리의 핀잔에도 개의치 않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신 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003년에 완공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어도의 해양 관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확실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어도 개발을 관철시킨 선생님은 현대사에서 영토 확장에 기여한 유일한 과학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중소형 다목적 스마트(SMART) 원자로도 선생님께서 첫 단추를 꿰어주신 쾌거였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원전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중국 고위관료의 푸념이 선생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떠올리셨던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스마트 원자로도 선생님의 놀라운 역발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으셨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발사체를 개발해야만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고, 항공우주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러시아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도입했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것도 선생님이셨다.



▲ 김시중 선생님은 문민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봉직하셨다



▲ 2002년 첫 개최한 YGF 기념사진

과총에 대한 남다른 애착

1992년 권이혁 회장께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입각하시면서 과총의 회장 대행(1992.4~1993.2)을 맡게 되신 선생님께서는 과총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 과총의 정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1992년 10월에 착공한 과학기술회관 신관의 건설 사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민관식 명예회장님과 함께 백방으로 뛰었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결국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995년에 신관을 완공했다.

2002년 제14대 회장(2002.3~2005.2)으로 취임하신 선생님께서는 과총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셨다. 1968년에 창간된 <과학과기술>을 국민과 소통하는 대중 월간지로 탈바꿈시켰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석학과 긴밀한 교류가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미국의 고든 컨퍼런스를 벤치마킹한 '다산컨퍼런스'도 출범시켰다. 지역의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협'을 결성하고, 기술자문 봉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재외 동포 과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재외과협'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2002년 재미과협의 협조를 얻어 과학기술 분야의 재미동포 2세 젊은 과학자 40명을 초청하여 'YGF'(Young Generation Forum)를 처음 개최하였다. 오늘날 미국·캐나다·일본·유럽·중국·CIS를 비롯해 전 세계의 한인 과학자들과 조직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 것도 온전하게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다.

2004년 11월에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인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했다. 과학기술이 진정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이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원칙을 지키고, 품격을 갖추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기술헌장은 2005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놓았던 황우석 사태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2004년 과학기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서 승격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과학기술계를 위한 목소리

과학기술계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2008년에는 과학기술부 해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어다니셨다. 부총리 부서로 승격되었던 과학기술부가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정부 조직에 분명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고,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과학기술을 확실하게 국정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과학기술이 홀로 독자청정할 수는 없다고 믿으셨던 선생님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하셨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분야와의 긴밀한 융합과 소통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과학기술처 장관에서 물러나신 1995년 11월에는 스스로 과학기술계를 비롯해 정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중진 100명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소통을 추구하는 '전문가 포럼'인 '과학기술포럼'을 창립하여 지난 5월까지 모두 235회의 월례모임을 직접 주관하셨다.

과학기술이 국정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판단하셨던 2014년 7월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선언'도 내놓으셨다. 2015년 5월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이었던 홍릉 지역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난개발에 반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홍릉 지역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홍릉과학단지'로 재탄생시켜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릉 지역에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과학기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미래지향적 통일 한국의 경제·지식·문화를 아우를 수 있도록 체계적·전략적으로 과학단지를 추진하여 홍릉 지역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선생님께서는 과학기술계가 홍릉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 현실을 못내 아쉬워하셨다.

작은 거인이셨던 김시중 선생님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신 김시중 선생님은 약관 23세에 조교로 시작하여 장장 42년 6개월 동안 오로지 고려대 화학과에서만 교수로 재직하셨던 토종 무기화학자이셨다. 학장·체육위원장·부총장을 역임하신 고려대학교에는 아직도 선생님의 체취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천성적으로 열정적이고 부지런하셨던 선생님은 과학기술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이 가야 할 미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던 큰 원로이셨다. 과학기술을 위해서라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챙겨주시던 진정한 선배이셨다. 과학기술계의 대규모 국제 행사와 과학기술계 출신 정치인들을 위해 후원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마다하는 법이 없으셨다.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힘을 합치고,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신 행동가이시기도 했다.

이제 멀리 계룡산이 건너다보이는 황산벌 끝자락의 포근한 선영에 고이 잠드신 선생님은 후배 과학기술인 모두의 가슴 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을 큰 별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ST**



▲ 1995년 과학기술포럼 창립모임 (출처 : (사)과학기술포럼)

이어도로 영토 확장의 꿈을 이룩한 과학자



글_심재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013년 11월,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어도(離於島)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중국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는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구 열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했다.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데에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큰 몫을 하였다.

이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과학적 연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학기지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해주셨던 김시중 장관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전설 속의 이어도를 현실로

제주도의 전설에 따르면, 이어도는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진 피안의 섬이다. 한동안 '파랑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2001년 국립해양조사원이 공식적으로 '이어도'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이어도는 수심 4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르는 암초이며, 가장 얇은 곳의 수심이 약 4.7m에 불과하다. 그래서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이는 날에는 이어도 암초가 수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 옛날 어부들은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보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어도 암초를 전설 속의 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이어도가 2003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로 현실화되었고 지금은 매년 10회 이상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해양 및 기상 관련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



▲ 이어도 기지 전경

설된 지 10년이 지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의 과학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여기에서 연구를 수행하려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탄생시킨 영웅이 바로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다.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과학계의 거인

필자는 20여 년 전부터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의 설계·제작·시공과 활용연구를 시작해 지금까지 계

속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다. 필자에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인생의 큰 획을 그은 일이었고, 김시중 장관님은 과학적 지성과 열정을 무기로 오늘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후배 연구자들에게 선물해 주신 은인이라 할 수 있다.

장관님과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가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해양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 김영삼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부임하신 장관님이 연구소를 방문하셨다. 당시 우리 연구팀은 이어도(일명 파랑도)에 태풍을 비롯한 해양 및 기상연구를 위해 무인 해상타워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과학적 측면에서 관측시설은 관측하고자 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대형 해양구조물이 갖는 장점도 분명히 많긴 하지만 대형 구조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연구팀 리더였던 이동영 박사의 설명을 들은 장관님의 생각은 달랐다. "기상 및 해양 관측, 자원 확보, 영토 확정 등에 두루 기여하게 될 기지를 초라하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와 기지를 만들 바에야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지. 신속하고 안전한 왕래를 위해서는 헬기장도 만들어야지!" 결국 지금과 같은 대형 해양구조물 형태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한마디로 장관님의 과학적 지성과 국가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연구팀도 장관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였다.

故 김시중 장관 추모특집 ②

장관님께서서는 곧바로 정책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을 통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이 국제법 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셨다. 당시 한국해양연구소의 정책개발실장으로 근무하던 입장근 박사도 과학기술처에 출입하면서 장관실과 연계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의 간사로 활동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전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관님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과학적 가치,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경제성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핑계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팀의 초초한 기다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장관님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선회하여 당시 관광 사업을 하던 몇몇 대기업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장관님은 대기업에게 망망대해 이어도에 해상구조물을 건설하여 과학적 목적과 관광 목적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민간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 역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난색을 표했다.

그러던 중 당시 삼성 이근희 회장이 국가를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협력 의사를 밝혀오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필자는 삼성중공업을 수시로 방문하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협의한 끝에 삼성이 건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연구원과 삼성중공업 사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일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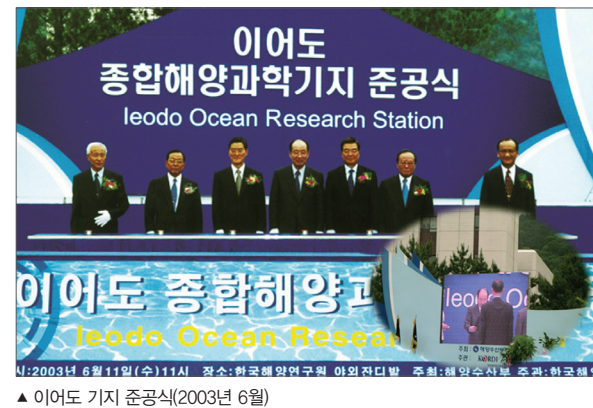
하지만 불행히도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서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다. 1995년 1월, 일명 '베이징 발언'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이근희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경제는 2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내 정치를 비판하는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건설 계획은 돌연 중단되었고, 앞친 데 댕친 격으로

김시중 장관님도 1994년 12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신 탓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의 추진력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그러나 장관님이 남겨 주신 유산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 열정에 힘입어 우리 팀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의 명맥을 계속 이을 수 있었다. 장관님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추진하시던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예산 배정을 약속받음으로써 우리는 정부 예산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분석 그리고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비록 장관님은 자리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나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역설해주셨다. 그런 노력 덕분에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하였다.

정책 결정자로서, 그리고 그에 앞서 한 분의 과학자로서 장관님의 발자취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깊은 잔향으로 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도 해역이 우리의 바다로 존립할 수 있는 시금석을 남긴 것이기도 하다. 만약 그때 당시 장관님의 과학적 지성으로서의 혜안과 적극적인 실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중국의 거대한 국력 앞에서 우리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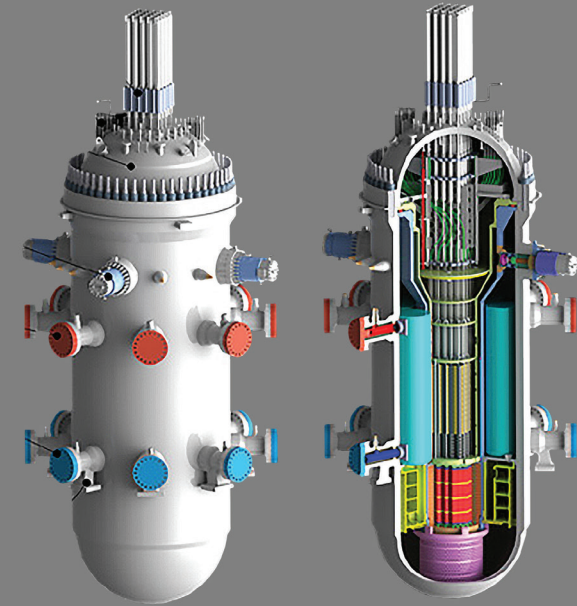
우리나라 해양과학자들은 김시중 장관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의 수혜자이며,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의 연구자다. 다시 한번 장관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ST**



▲ 이어도 기지 준공식(2003년 6월)

故 김시중 장관 추모특집 ③

그 넓은 가슴과
따듯한 미소를
안으며



글_신재인 |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김시중 장관님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과학기술인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올곧음'과 '바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이 있었습니다.

북핵 대응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1993년 10월 저는 장관님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을이 그렇듯이 빈의 가을도 아름다웠습니다. 성탄 준비에 들떠 있던 분위기가 유명한 빈교향악단의 선율을 더 감미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 즈음에는 빈의 중심에 있는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총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만드는 정치적 대결로 총회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특히 1993년의 제37회 총회에서는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에 대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응징의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긴장 스트레스는 극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기권은 허용하더라도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정부의 훈령이었습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공언했었습니다. 199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술핵 폐기를 결정하고, 그해 11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북한의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특별사찰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1993년 3월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이름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가 현재 우리가 겪고

故 김시중 장관 추모특집 ③

있는 북한의 거대한 핵 개발 사업에 대한 분쟁의 출발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님은 IAEA 총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의 수석대표 자격으로 인사를 하고, 각국의 대표단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날 결의안은 중국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이 기권하였지만, 반대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장관님은 정부에 총회 상황을 알리는 보고문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훑어보니 첫 문장이 '소직'으로 시작하는 문서였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총회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데 본인을 낮춰 '소직'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님은 큰 웃음으로 제 분노를 감싸면서 그것이 오랜 관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할 일이라고 저의 항의를 절반은 동조해주셨습니다.

빈에서 귀국하고 이틀 뒤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 국정감사의 첫날은 언제나 힘든 날이었습니다. 빈 출장의 피로로 풀지 못하고, 시차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월 8일에 경제과학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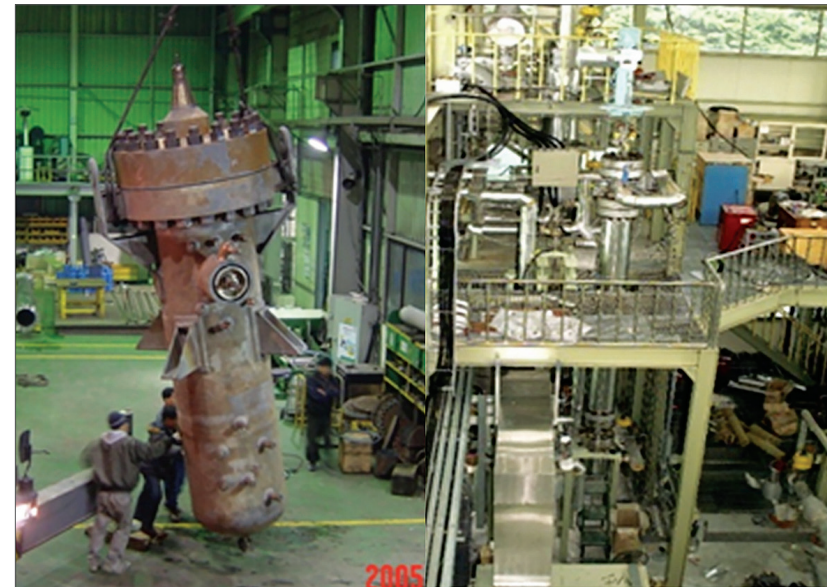
▲ 1994년 방사성 폐기물부지 확정발표를 하고 있는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

회의 과학기술처 국감을 받았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유일한 관심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우리의 대응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과기처에 대한 모든 질문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모두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돌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먼저 '남북비핵화선언'을 철회하고, 우리도 재처리 등의 민감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장관 소신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관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답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든 기자들이 국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신문 1면에는 대문짝만한 활자로 '과기처 장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철회 건의' 또는 '평화적 목적의 핵 재처리 사업 추진' 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떴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소동은 다음 날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유도 질문에 소신껏 답변한 김 장관님을 질책했다는 후속 기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시중 장관님은 걱정하던 제 얼굴을 보고 대통령의 질책은 없었고 기사만 있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김시중 장관님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사실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유추한 후에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정부에 건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장관님의 이 지시가 2004년 우리나라에 온 IAEA 사찰단이 관심을 가졌던 우리늄 농축의 씨앗을 제공하였습니다.

장관님의 올곧음·바름·포용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 부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장군 부지가 성공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육이 내포된 정치적인 개입으로 기장군의 부지 결정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중 장관님은 최종적으로 부지 선택을 굴업도라는 무인도로 방향 전환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도 하였지만 해저에 지진 단층이 발견되어 포기하였습니다.



▲ 김시중 장관님은 소형, 일체형, 발전 및 담수화 기능이 포함된 신형원자로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셨다

섬세한 스마트 원자로 개발

1993년 한국 원자력계는 한국형 표준원전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 표준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계는 한국형 표준원전 이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실제로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뚜렷한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시중 장관님은 소형, 일체형, 발전 및 담수화 기능이 포함된 신형원자로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원자로의 안전성, 미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경제성, 국제적인 공동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런 신형원자로의 개념을 선택한 배후에는 과거 일본이 추진하였던 원자력 상선 무즈와 대형선박과 심해 잠수정을 위한 MRX와 DRX의 연구개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과 거대한 사막이 있는 국가, 인도네시아 같은 도서 국가들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용 가능한 연구 재원의 대부분이 표준원전 개발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기획원을 어렵게 설득해서 1년 단기과제로 연구 예산을 배정받아 후에 스마트(SMART)로 명

명된 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의 도움으로 계속되었으며, 러시아 RDIP와 기술협력을 통해 개념설계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는 100MW의 전력과 하루 4만톤의 담수화 능력을 갖춘 작은 원자로로 개발되어 2012년 표준설계인증을 마친 세계 최첨단의 소형 원전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원전에 대한 엔지니어링 설계를 공동으로 완성하고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93년에 심은 씨앗이 10년이 훌쩍 지나 마침

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나 1994년 말 김시중 장관님이 과학기술처를 떠나신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개발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과 예산 삭감 등으로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김시중 장관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뵙고 싶습니다. ST



▲ 스마트 원자로는 2012년 표준설계인증을 마친 세계 최첨단의 소형원전이 되었다

타협 모르던 대쪽 과학자, 과기 정책의 씨앗 뿌리다



글_박근태 | 한국경제 기자

▲ 2016년 2월 '제1회 극지인의 밤'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시중 장관

1993년 3월 2일 자 서울신문에는 '과학자가 보람을 맞보는 정책 펴 터'라는 제목의 작은 인터뷰가 실렸다. '과학기술 통한 경제 희생', '현실에 맞는 기술개발로 위기 대처할 때'라는 부제가 달렸다. 인터뷰 주인공은 지난 10월 타계한 고(故)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다. 일주일 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에 임명된 직후 첫 소감과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연구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이 걸치레가 아닌 묵묵히 소신 있게 연구에 전념하는 과학자가 보람을 맞보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과학자가 보람을 맞보는 사회로 거듭났을까? 과학자 사회는 지진과 바이러스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누구도 선뜻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무기화학 1호 박사 이면서 과학 행정가의 삶을 살았던 고인이 당시 인터

뷰에서 했던 말은 한국 과학기술계에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과학자가 보람 느끼는 환경 만들어야

과학자가 연구에만 전념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공언은 수차례 선거를 거치며 이제는 국민에게 귀에 박힌 말이 됐다. 지난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그보다 앞선 18대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당시 박근혜 당선인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 정부들은 출범 이후 연구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과학기술 정책은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라는 정권의 브랜드에 가려 순위가 뒤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여성 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자 주도의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볼 일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나라 살림은 크게 개

선됐지만, 한국 과학기술의 목표는 오로지 경제 성장에 집중됐다. 비록 과학자 출신이지만 고인은 누구보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복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 '첨단 하이테크 정책을 포기하는 거냐'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디엄테크' 정책과 산학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과학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평소 고인의 소신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과학 정책으로는 남을 뒤쫓는 데 급급하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실제 1980년대를 거치며 상황이 개선됐지만 1990년대에도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환경은 열악했다.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선배 과학자로서 연구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긴 어려웠다. 뭔가 과학계에 활력을 줄 변화가 필요했다. 문민정부의 출범은 과학기술계는 변화를 도모할 기회였다. 때마침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선

제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지는 과학자가 소신을 갖고 연구를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고인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누차 강조했다.

검증된 행정가이자 직접 몸으로 뛰었던 과학자

최근 수년 새 임명된 과학기술 부처 장관의 면면과 비교해보면 고인은 '스펙'이 뛰어난 검증된 행정가였다. 장관직을 제의받기 전에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대한화학회 등 각종 학술단체 회장과 고려대 부총장을 지내며 넓은 시각으로 과학계 전체를 바라봐 왔기 때문이다. 과학계는 물론 과학자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활동해온 그의 임명에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고인은 조용한 과학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시끄러운 과학자'였다. 과학계 현안이 생기면 해결을 요구했고 직접 몸으로 뛰었다.

1980년대 교육부가 국립대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집중하자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끝내 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주요 사립대들이 지금 같은 연구 능력을 갖추게 된 것도 이때부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와대건 부처 장관건 이견 가리지 않았다.

1993년 2월 26일 자 주요 신문들은 김영삼 정부의 인선을 평가한 기사에서 그런 고인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했다. "대쪽 같은 성품에 치밀한 일 처리 능력이 돋보인다", "학

과학기술계동경

과학기술처장관에 金始中박사

金始中대통령, 새정부 組閣발표



◇金始中 과기처장관

할을 해왔다.

金始中대통령은 2월26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李經植한국가스공사사장, 과기처장관에 金始中과총회장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24개부처 각료를 발표, 새정부 組閣을 완료했다.

金始中대통령은 黃寅性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인선한 조각에서 ▲농림수산부장관에 許信行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상공자원부장관에 金益壽무역진흥공사사장 ▲건설부장관에 許在榮국토개발원장 ▲보사부장관에 朴贊賢 前여의사회회장 ▲교통부장관에 李賢鎔 前관광공사사장 ▲체신부장관에 尹東聖체신부차관 ▲환경처장관에 黃山城변호사를 임명했다.

과기처장관으로 임각한 신임 金始中장관(61세)은 忠南鎭山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5년 고려대 강사로 부임한 이래 38년간 줄곧 後學을 양성해 온 무기화학계

의 태두로 이과대학장, 서창캠퍼스부총장 등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거쳤으며 1992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대통령상) 과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科學이사,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科學회장직무대행을 맡은뒤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과 정책개발에 큰 역

신임 金始中과기처장관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주요경력 ▲고려대 조교수·부교수·교수(55~현재) ▲고려대 이공대학이 학부장(75~77) ▲문교부 학술진흥위원회(79~현재) ▲파총이사(84~91) ▲고려대 이과대학장(87~88) ▲고려대 서창캠퍼스 부총장(88~89) ▲문교부 중앙교육심의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장(88~현재) ▲문교부중앙교육심의회 과학기술분과위원장(88~현재) ▲과기처 종합과학심의회의위원(87~현재)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88~현재) ▲과총부회장(91~92) ▲한국과학기술 파이어드위원(92~현재) ▲대한화학회회장(93. 11~)

■ 주요저서 ▲무기화학 ▲파하는문자성법 ▲일민화학 ▲일민화학실험 ▲화학결합론外 10여종

■ 수상경력 ▲국인훈장석류장 ▲대한민국과학기술상(과학상)

■ 가족사항 ▲부인 李淑媛(58)와 2男2女

▲ 1993년 과학기술 3월호에 게재된 김시중 장관님 취임 기사



▲ 고인은 과학계 현안이 생기면 직접 몸으로 뛰며 해결한 검증된 행정가였다

자 특유의 깐깐한 성격이나 대인관계는 비교적 무난한 편”, “화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알고 있고 활동 범위가 넓은 과학계의 “마당발”.

고인의 재임 기간에는 국내 과학계에 유독 현안이 많았다. 1990년대 초는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주, 원자력, 해양 등 규모가 큰 연구에 대한 과학계의 열망이 커지던 때였다. 여러 기사에서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은 크고 작은 일화를 남겼다. 재임 초기 포화 상태에 이른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문제가 떠올랐다. 방폐장 건설 후보지로 지목된 지역 주민의 반대는 완강했다. 국민의 설득이 어려워지자 저준위 폐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고 자신의 집무실에 저준위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 2개를 가져다 놓아둔 일은 유명한 일화로 내려온다. ‘비핵화 선언’ 이후 핵 재처리 문제를 언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학자적 양심으로 핵 재처리에 대한 기초연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시끄러운 과학자’이면서 ‘누구의 눈치도 안보는 장관’이었던 셈이다.

과학외교의 틀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중심에서 다변

화한 점 역시 주요한 업적으로 남는다. 당시 수교한 지 얼마 안 된 중국,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교류가 본격화됐다.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됐고 과학로켓(KSR)과는 별도로 우주 발사체용 액체로켓 기술 개발이 시도됐다. 비록 당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은 훗날 나로호 개발과 한국형 발사체(KSLV-2) 개발의 초석이 됐다. 중소형원자로와 이어도 해양과학기

지도 이때 씨앗을 뿌렸다. 과학 현안이 자주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과학담당 기자들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

과학기술 50년의 기억들

고인은 지난해 초 장문의 기고문 한 편을 보내왔다. 초고 분량만 원고지로 100쪽에 가까웠다. 지면 사정상 모두 실기가 어렵다는 말에 고인의 표정은 조금 낙담한 듯 보였다. “나중에라도 지면의 여유가 되면 기고를 몇 차례 더 실어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남겼다.

기고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고 같은 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출범한 지 50년을 맞아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회고라는 형식을 빌려 담았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프로그램의 시작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KIST 설립과 해외 유학 중인 과학자들의 유치 뒷배기들을 풀어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짓는 과정에서 전설로만 내려온 암초 관할권의 중요성을 일깨운 두 명의 과학자에게, IMF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선뜻 기지 건설과 한국형 로켓 개발, 과학교육기금 조성에도움을 준 기업인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다. 돌이켜 보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 같다.

지난해 지병이 악화하기 전까지 고인을 몇 차례 뵈기회가 있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과학기술 50년의 살아있는 역사, 뒷이야기를 접했다. 보기와는 달리 굴곡도 많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이어온 현대사의 한 부분이었다. 고인은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과학적 사고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애석해했다.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온 과학기술자들과 이를 든든히 지지해준 국민에게서 희망의 싹을 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용기 내 현실 바꿨던 훌륭한 과학자들 기억해야

고인의 타계로 잠시 우리 사회가 과학자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아직 한 인물의 죽음을 평가하고 기억하는 일에 익숙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독 과학자의 죽음에 인색하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에는 지금도 거의 매주 과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부고 기사가 올라온다. 고인의 개인적 삶과 사회에 미친 업적이 비교적 소상히 소개된다. 여성 과학자의 처우 개선에 헌신한 폭탄 연구자, 남극 오존층 발견에 기여한 극지 연구자, 더 정확한 날씨 예보 지수를 개발한 기상학자, 미 하원 중진을 지난 핵물리학자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반면 한국 사회에선 재벌 기업인의 죽음이나 예술가의 죽음, 스포츠인이나 연예인의 죽음만큼 과학자의 죽음이 대등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는 물론 대중에게 익숙한 과학자가 그만큼 적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현대 과학의 역사만 100년이 넘고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수많은 과학자를 배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과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과학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그만큼 과학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몇 년 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낸 한 토막의 기사는 작은 올림을 전한다. 영국 배스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게브리엘 마고 박사는 2009년 자신의 연구실 리더인 클라우스 쿠르텐바흐 교수의 갑작스런 죽음이 가져온 충격을 이렇게 적었다. “한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분야 전체의 지식이 송두리째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알던 모든 사람과 경험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가 평생 쌓았던 업적의 작은 조각들을 주워 다시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작은 연구실을 이끌던 과학자의 죽음이 가진 의미가 이럴 정도인데 척박한 토양에서 과학 발전에 평생을 바친 과학 행정가의 삶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돌이켜보면 고인은 어떤 측면에선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과학자였을지 모른다. 연구 장비는커녕 연구비를 받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이던 시대를 과학자로 살았다. 어떤 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하고 싶지 않을까.

고인이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용기 내서 연구실을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도 많은 현안이 후배 과학자들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SD**



▲ 과학외교의 틀을 다변화한 점 역시 김시중 장관의 주요 업적이다



과총과의 인연

1971년 대한화학회 총무간사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건립 모금을 하는데 40평 정도의 사무실 영구 입주권을 갖는 조건으로 160만 원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대한화학회도 그 당시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으로 자금 여력이 녹록지 않았을 때였지만 과총의 설립과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납부했습니다. 이후 1978년 민관식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과총의 활동이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저도 본격적으로 과총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직무대행 경험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과총이 과학기술계 전체를 대표해 국가, 정부, 국민 관계에서 중심체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과총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 정부에서는 학회 보조금은 줄 수 있지만, 과총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였습니다. 회원학회들에게 회원 수 비례로 분배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추진했고, 그것 때문에 과총 정관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관이 되면서 이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를 좀 더 발전시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학술원도 있었는데 학술원은 원로분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젊고 아카데미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뿌리는 과총인 거죠.

회장직무대행을 하면서 했던 일 가운데 또 생각나는 것은 학회 발전을 위해서 SCI 등재 학술지 확대를 위해 특별 지원을 했던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날 학회의 수준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14대 회장으로의 활동

장관을 마치고 과총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과학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이 사회가 굉장히 정화되고 나아가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가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학술회의를 전면 개편해 두 가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과총과학기술국제학술회의(KCIST)' 이고 또 하나가 '영제너레이션 포럼(YGF)'예요.

KCIST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아주 좁은 범위의 세계적 연구자들이 산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3일 내지는 1

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토론하는 형식인 외국의 고든(Gorden) 컨퍼런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YGF는 사실 처음엔 순전히 재외 교포 1.5 또는 2세대들의 민족적 동질감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2002년에 재미과협과 첫 번째 YGF를 하고나서 재외 과협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동안 재외 과협에 관심도 없던 학부모들이나 사람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언제 또 하나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전 세계로 확대하고 인원도 늘렸어요. 사실 YGF 때문에 유럽 쪽 과협들이 살아난 거라고 봐야 해요. YGF가 10년이 넘으면서 이 행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200명이 넘어요. 그 파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죠.

우리 과학기술계의 당면과제

하나는 인간이 살아 있는 한 제조업에 대한 과학기술연구가 발전이 되어야 해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사회와 동떨어져 하나의 이해관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과학기술계나 정치·사회 양쪽 모두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계를 배려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에 과학기술계 인사를 배치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과학기술계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계에서 추천했다고 하는 후보들을 살펴보면 이 게 과학기술계가 폭넓게 소통한 결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정치계나 이런 데는 차치하고 서라도 먼저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단결하고 뭉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패거리 문화가 좀 있어요. 뭐 그런 것

까지야 이해하더라도 서로 너무 경쟁적이에요.

과학기술인들이 과총을 중심으로 과총의 장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대화하고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이게 결국은 다 과학기술인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기도 아니까요. 헌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단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총의 역할

저는 만약 과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과학기술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이 경제의 한 분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총을 중심으로 당시 몇 안 되는 과학기술인 선배들이 모였고, 그들이 모여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과학기술계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모두들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과총이 단순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 경제발전의 역사뿐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비롯해서 뿌리는 모두 과총이 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 과총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봐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권리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해 하나로 모아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이 과총이 가져야 할 고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ST**

발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0년사, 인터뷰 일시 : 2016. 5. 27)

故 김시중 장관

1932. 8. 19 ~ 2017. 10. 29

<p>학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대전고등학교 1955년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1957년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1967년 고려대학교 무기화학 박사 <p>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 화학교육상 1980년 국민훈장 석류장 199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과학상 1993년 자랑스런 고대인상 1995년 창조근정훈장 2005년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대상 특별상 2006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p>주요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5~1997 고려대학교 교수 1988~1989 고려대학교 부총장(세종캠퍼스) 1991~1992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 1992~1993 제10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대행 1993~1994 제14대 과학기술처 장관 1993~1994 제28대 대한화학회 회장 1995~1996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 1995~2017 사단법인 과학기술포럼 이사장 1996~2001 제2, 3대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 2002~2004 제14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2009~2012 국민원로회의 위원 2013~20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	--